

## ‘구원 전업’ 한기주 완벽投



### 3.1이닝 무실점 호투...KIA, 현대 꺾어

“한기주 변신은 무죄” 한기주는 프로 데뷔전인 4월 9일 한화전에서 4이닝 5실점으로 뼈아픈 첫 패배를 당한 뒤 들쭉날쭉한 피칭으로 KIA 코칭스태프의 속을 태웠다.

2군에서 담금질도 해봤지만 1군으로 복귀하면 또 다시 제구력이 흔들렸다.

팀 선배들의 타선 지원이 아쉽기도 했지만 두자릿수 패배(10패)는 어쩔 수 없는 부진의 증거로 남았다.

한기주는 결국 후반이 들어 보직을 바꿨다. 그런데 예상외로 성공적이다.

한기주 자신도 “보직 변경 후 마음도 편하고 적성에도 맞는다”고 말했다.

한기주는 지난 12일 광주 SK전에서 ‘구원 투수’로 완전 전업한 이후 27일 현재 6경기 동안 ‘무실점’ 호투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한기주는 27일 광주 현대전에서 6회 1사 1.2루 위기상황서 마운드에 올라 152km의 강속구를 앞세워 3.1이닝동안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시즌 6승째. 마무리 윤석민은 9회 0.1이닝을 던져 1세이브를 챙겼다.

KIA는 이날 승리로 현대전 홈 경기 3연패의 악연을 끊었다. 지난 4월 15일 수원전 이후 현대 선발 전준호만 보면 피리를 내리던 4연패의 징크스도 없었다.

KIA는 0-2로 뒤진 6회 이응규의 볼넷과 도루를 묶어 만든 1사 2루서 김원섭의 중전 적시타로 1점을 만회했다.



계속된 공격에서 조경환의 볼넷으로 2사 1.2루 역전 기회를 잡아낸 KIA는 이현곤의 우중간을 꿰뚫는 적시 2루타가 터지면서 3-2로 역전에 성공했다.

/박진호기자 lucky@kwangju.co.kr



## 이지영 또 뒷심 밀리나...

### LPGA 웬디스 챔피언십 3R 오초아에 2타차 선두 빼앗겨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웬디스 챔피언십에서 이를 연속 공동 선두를 달렸던 ‘루키’ 이지영(21·하이마트·사진)이 3라운드에서 2타차 2위로 내려앉았다.

이지영은 2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더블린의 탄탄필드골프장(파72·6천517야드)에서 열린 대회 셋째날 4타를 즐겼으나, 합계 15언더파 201타로 ‘백스코의 여걸’ 로레나 오초아(199타)에 2타차로 역전을 당했다.

1.2라운드에서 선두 자리를 지켰던 이지영은 이날도 버디를 6개나 슈어내면서 선전했다. 그러나 3번홀(파4)에서 저지른 더블

보기가 뼈아팠다.

이에 비해 오초아는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뽑아내 8언더파 64타의 데일리베스트샷을 작성하면서 합계 17언더파 199타로 단독 선두로 뛰어올라 우승 후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앞서 2개 대회에서 연속 1라운드에서 선두에 나섰다가 뒷심 부족으로 물러섰던 이지영은 투어 입문후 첫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 선수와 맞서 막판 저력을 발휘해야 할 숙제를 떠안았다.

이지영은 오초아와 3라운드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공동 3위에 오른 일본의 ‘아이징’

미야자토 아이와 마지막날 동반 라운드를 펼친다.

2라운드에서 공동 선두에 나서 생애 통산 2승을 노렸던 ‘맘언니’ 강수연(30·삼성전자)의 부진도 아쉬웠다.

목 부상을 극복하고 이번 대회에서 이를 동안 보기 없이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던 강수연은 이날 버디는 1개도 잡지 못하고 보기 1개와 더블보기 1개로 3타를 잃어 합계 8언더파 208타로 공동 18위까지 미끄러지고 말았다.

배경은(21·CJ)이 4타를 줄여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톱10 입상의 가능성을 높였고 김영(26·하이마트)과 김주연(25·KTF)은 합계 9언더파 207타로 공동 13위, 송아리(20·하이마트), 장정(26·기업은행), 김주미(22·하이마트)는 강수연과 공동 18위에 머물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IA 이현곤 “감 잡았어”

### 군 제대 후 와신상담 제기량 찾아 타율 0.292...최근 5경기서 3할대



을 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앞둔 지난 4월 초 군 복무중인 이현곤(26)이 서정환 KIA 감독을 불속 찾았다.

당시 광주시 서구청에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있던 이현곤은 “감독님 저 의병제대(依病除隊) 했어요. 열심히 할게요”라며 멋진 웃음을 띄웠다.

서 감독은 이미 소식을 들은 터라 “그래”라고 짧게 대답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 감독은 겉으로만 그랬을 뿐 속으로 이현곤의 복귀가 더 없이 반가웠다. 사실 서 감독은 시즌 초 이현곤의 등번호인 ‘31번’을 탐내는 일부 선수들에게 ‘잡근 금지’ 명령을 내려 놓을 정도로 무한한 신뢰감을 보였다.

고 한다. 광주일보 출신인 이현곤은 지난 98년 KIA로부터 고졸 연고 우선지명(계약금 3억5천만원)된 뒤 연세대로 진학, 2002년 졸업과 동시에 KIA에 입단했다.

‘포스트 이종범’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그는 그러나 입단 첫째 타율 0.257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듬해에도 타율 0.263으로 신통찮은 성적을 내왔다. 앞선데 달진격으로 2004년엔 병역비리에 연루되는 등 개인적인 시련을 겪었고 결국 2005년 봄, 군에 입대했다.

하지만 그는 군 입대 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공익근무를 마치면 지친 몸을 이끌고 광주구장을 찾아 매일 3시간씩 땀을 쏟아내는 등 야구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다.

야구를 하고픈 그의 간절한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

그는 을 시즌 개막을 앞두고 평소 자주 앉아오던 갑상선 질환이 악화돼 의병제대 관정을 받고 팀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현곤의 앞길은 또 다시 ‘자갈밭’이었다.

‘용병타자’ 서브백이 자신의 포지션인 3루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 여기에 갖 제대한테다 건강도 좋지 않은 탓에 두 차례나 1-2군을 오가기도 했다.

다행히 서브백이 퇴출된 6월 말부터 주전 3루수를 꿰차더니 자신의 주특기인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후반이 들어선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팀을 4강권에 올려놓는 일등공신이 됐다. 늦여름 더위 탄 호랑이에겐 보약이 된 셈이다.

한편 이현곤은 26일 현재 46경기에 출전, 144타수 42안타, 15타점, 21득점으로 시즌 타율은 0.292를 기록 중이다. 최근 5경기서는 19타수 6안타로 3할타를 휘두르고 있다.

/박진호기자 lucky@kwangju.co.kr

## 우즈 4연속 보기...2위 최경주 2오버파 33위

### PGA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 3R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4개 홀 연속 보기의 난조에 빠져 단독 선두에서 공동 2위로 내려앉았다.

우즈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에크런의 파이어스톤골프장(파70·7천360

야드)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총상금 750만 달러) 3라운드에서 보기 4개에 버디 3개를 쳐 1오버파 71타를 기록, 합계 8언더파 202타로 데이비스 러브 3세(미국), 폴 케이지(잉글랜드)와 공동 2위가 됐다.

2004년 대회 우승자인 스투어트 싱크(미국)가 합계 201타로 1타차 선두에 나섰다.

대회 2연패와 통산 5번째 우승, 최근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한꺼번에 노리고 있는 우즈는 이날 5번 홀부터 8번 홀까지 내리 보기를 범하며 발목을 잡혔다.

5번 홀(파5)에서 약 2m 거리의 퍼퍼트를 놓친 우즈는 7번 홀(파3)에서는 그보다 짧은 거리의 퍼퍼트에 실패했다.

우즈는 이날 페어웨이 안착률이 50%에 그쳤고, 그린 적중률도 39%로 저조했다.

최경주(36·나이키골프)는 이날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7타를 쳐 합계 2오버파 212타로 공동 33위까지 상승했다.

에니 엘스(남아공)는 이븐파 70타를 쳐 합계 5언더파 205타로 공동 7위에 올라 톱 10 입상을 바라봤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정규 퍼블릭 9홀 ‘창평CC’ 9월 개장

담양군 창평의 월봉산 자락에 조성된 정규 퍼블릭 9홀 ‘창평CC’(파 36·2,974m)가 오는 9월 정식 개장된다.

창평CC는 도심과 자연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했으며 2개의 그린을 만들어 정규 18홀에 버금가는 플레이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했다. 또한 전홀에 조명시설을 완벽히 이룬 아침과 저녁에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라운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광주에서 최단거리인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난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창평CC는 9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3개의 티박스과 2개의 그린을 설치해 두 번 라운드를 통해 18홀 라운드의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시원스러운 폭포와 넓은 연못, 각 홀마다 전략적인 코스설계로 라운딩의 묘미를 살렸다.

또한 코스가 최대한 자연 친화적으로

셋업과 적절한 언드레이션(기복이 있는 그린, 적당한 업 다운이 있는 페어웨이, 곳곳에 배치된 벙커를 통해 퍼블릭 코스의 단조로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김형준 창평CC사장은 “광주에서 15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조명시설이 완벽히 있어 직장인들이 출근전이나 퇴근 후에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적은 비용으로 즐거운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내실있는 골프장으로 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